



어린이를

노 노 표 이 자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읽는
대한민국 어린이현장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힘을
길잡이로 삼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부모님이 함께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어린이에게는 자존감이 자라나고,
부모님은 어린이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거예요.

경기도어린이박물관(용인)과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동두천)은
2021년 5월부터 모든 어린이 관람객에게
존댓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담은
“어린이를 높이자” 캠페인으로써,
박물관 안의 존댓말이
박물관 밖 더 많은 참여와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어린이의 바른 성장과
인권 향상에 관심을 가질 때
어린이가 높아지고
우리 모두의 미래도 함께 높아질 테니까요.



1장

어린이는
건강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

2장

어린이는
고른 영양을
섭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장

어린이는
좋은 교육시설에서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4장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롭게 창조하고
널리 퍼나가는 힘을
길러야 한다.

5장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공간을
제공받아야 한다.





6장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한겨레로서 서로 돕고
스스로를 이기며,
책임을 다하는
민주시민으로
자라야 한다.



7장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장

어린이는
해로운 사회환경과
위험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한다.

9장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10장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 하고,
빛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장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짚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

12장은 부모님과 어린이가 서로의 약속, 다짐, 바람을 담아
열두 번째 우리 집 어린이 현장을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함께 실천해 주세요.

12장

어린이는

.....

.....

.....

.....

.....

.....

.....

.....

100여 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날 선언문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을 때맞춰 하여 주시오.
잡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산보와 원족 같은 것을 충분하게 하여 주시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 자세 타일러 주시오.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대 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1923)





어린이의 자유로운 상상과 용기가 자라나도록
경기도의 두 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 인권 신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람객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박물관에 이야기해 주세요.

경기도어린이박물관 <https://gcm.ggcf.kr/>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https://ngcm.ggcf.kr/>

